

DANCE THEATER 集 『zip』

2006. DANCE THEATER 集 정기공연 「진흙」
대전 시립 무용단 2006안무가 페스티벌

2005. 국립 무용단 기획공연 '바리바리춤 디딤새'
-봉산탈춤에 형상화된 성(性)·버려짐

05'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
<GO!!! STOP!!!-버림>

부산 민예총 무대분과
<오버 더 레인보우>

2004. 김미란 무용단 정기 공연
<얼룩·거미집·방어리 춘앵·인연>

부산 시립무용단 기획공연
-한 여름 밤의 춤 작품전
<꽃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?>

2003. 제 13회 신인 안무가전 작품상
<꽃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?>

03' 젊고 푸른 춤꾼 한마당
<꽃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? II >

2007
DANCE THEATER 集 『zip』

그리고...

그들은 꽃에
수감을 채웠다.



2007. 7

6 | 금 | PM8시, 7 | 토 | PM6시

민주공원 작은방

모시는 글

불을 삼킨 것도 아닌데..
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..
무엇이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..
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에서는 그 이유를 알곤 합니다..

‘구속’이라는 단어의 뜻은..
“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함”을 뜻하는 말입니다..
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갑을 온 몸에 채우고 살아갑니다..
나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구속일 수 있습니다..
또한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수갑들이..
어쩌면 쓰러지지 않게 사방에서 내 온 몸을 지탱해주고 있을지 모릅니다..

“죽도록 미워하고 미친듯이 사랑하라..”
완전한 자유는 어떤 모습, 어떤 향기, 어떤 느낌일까요??
자유를 갈망하는 것 또한 또 하나의 구속일진데..

깊은 물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하려합니다..
이 시간 이 공간에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..
당신의 손목에 걸친 많은 수갑 중에..
조이고 무거워 손목이 아려오는 수갑은 무엇입니까?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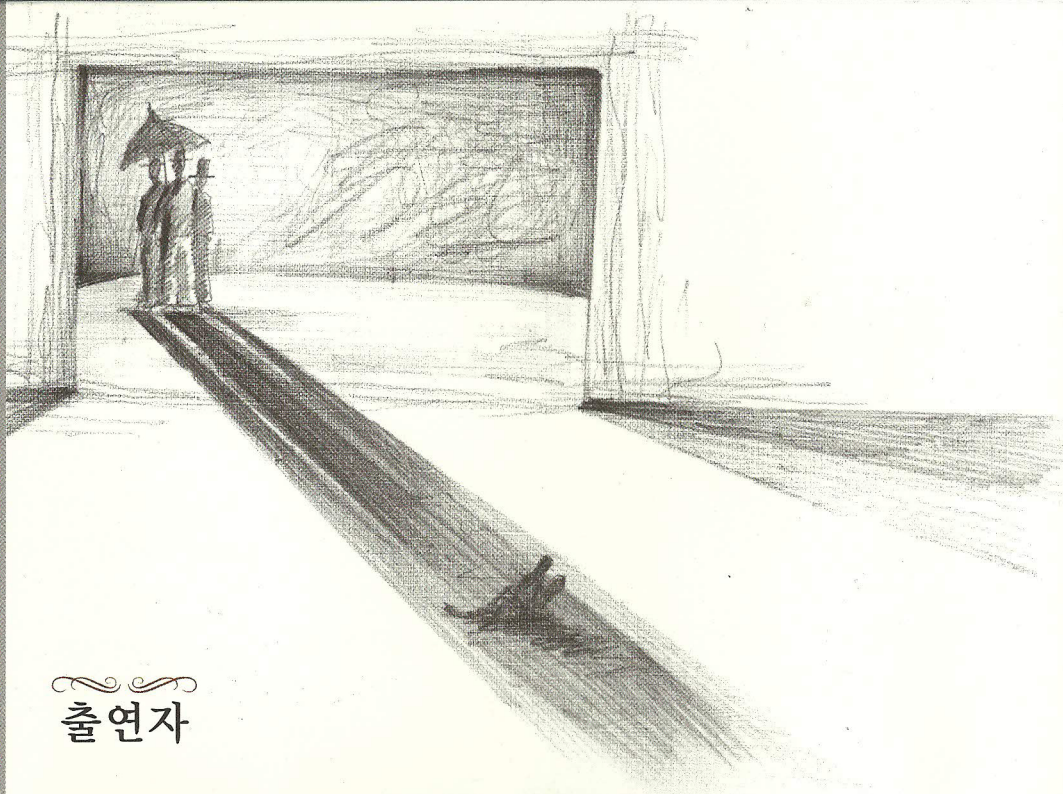
가족, 사랑, 친구, 스승, 동료, 선후배.....DANCE THEATER 集 을 모르시는 분...
제가 가진 이 많은 구속의 끈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작품도 없었겠지요??
귀한 시간 귀한 마음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..

DANCE THEATER 集 『zip』 대표 김미란

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야.
당신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면 나는 당신의 팔 히트를 벌려요.
그럼 무기가 될거죠?
유명한 히트가 되지.
내가 나머지 팔 히트도 어떤 무기가 될까요?
유명한 가수가 되겠어.
내가 머리를 베어버리면요?
죽은 뒤 내 피복은 예쁜 복이 될거야.
내가 그 복을 태우면요?
가름이 될래. 어떤 모양으로도 변할 수 있잖아.
가름이 다 풀이저버리면 그때는요?

비가 될거야...

태르반도 이리받
「한도라 리스」 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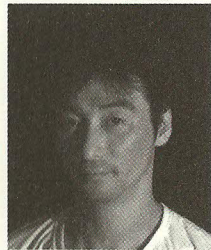
출연자



이현숙
부산시립무용단 단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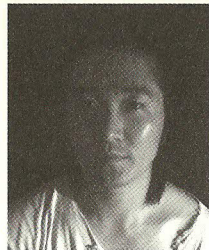
박소현
DANCE THEATER集 단원



김병욱
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단원



최현정
DANCE THEATER集기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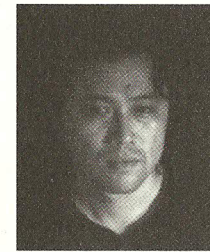


최이옥
부산시립무용단 단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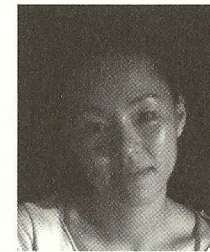


안죽희
부산시립무용단 단원

스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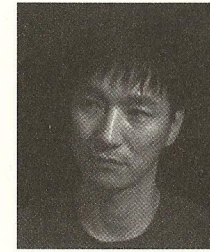
씨노그래피 백창순
DANCE THEATER集 연출



안 무 김미란
DANCE THEATER集 대표
부산시립무용단 단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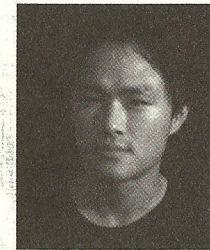
의상 안정숙
부산시립무용단 소품담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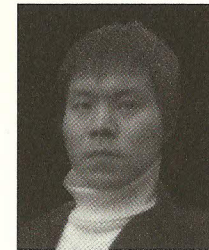
음악 서상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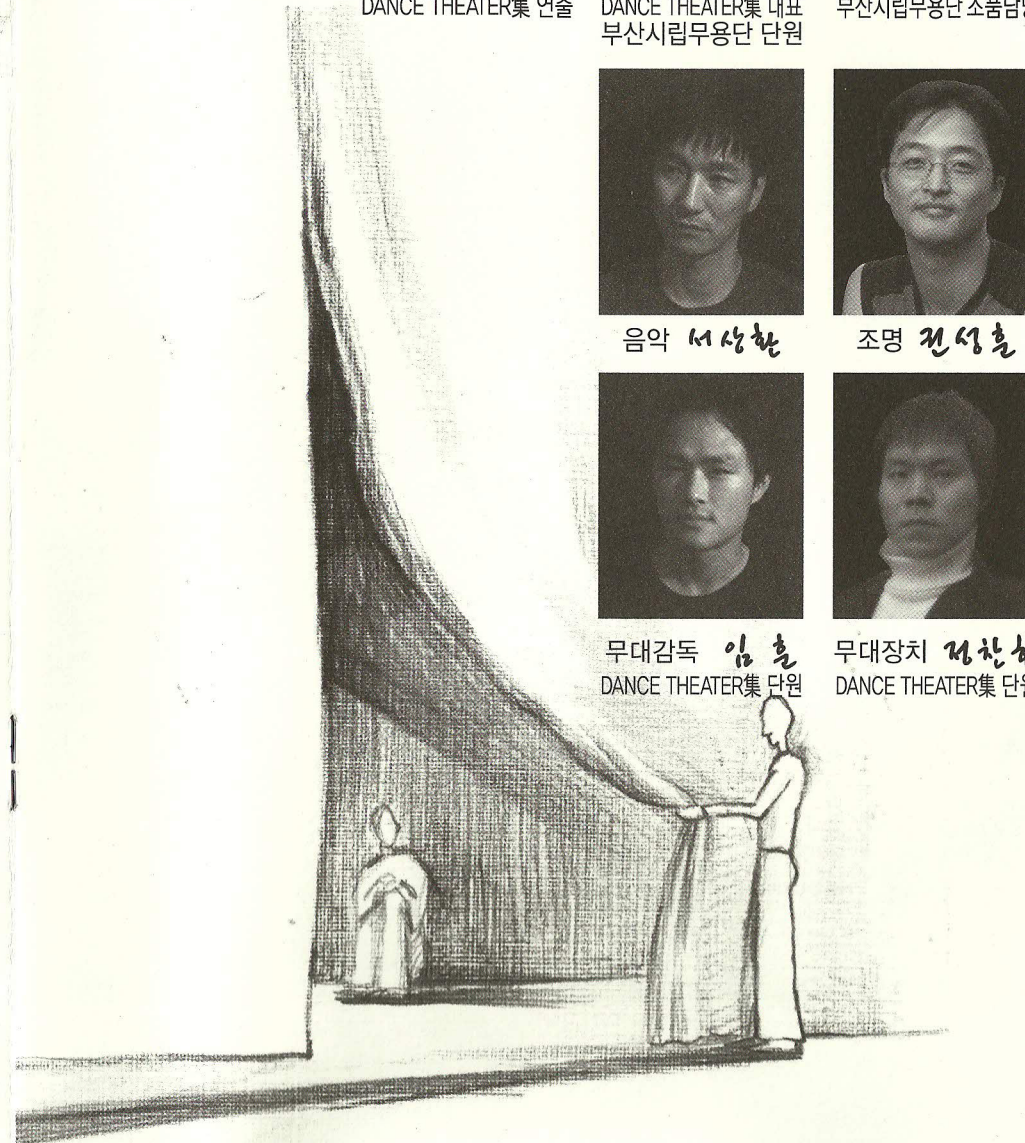
조명 권성훈



무대감독 임현
DANCE THEATER集 단원



무대장치 정한수
DANCE THEATER集 단원



'죽속'

이러는 이름으로 날 지배하고 있던 삶은
그저 잠시 스쳐가는 바람같은 것이다.
진정한 '자유'란 무엇일까?
어쩌면...
이런 생각도 '죽속' 안지 모르겠다.



삶이어...
너는 자유다..
날아라...
다시 제자리로
날아올라도...

